

전남도, 청년인구 정착 지원... “월 1만원에 신축아파트 공급”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 총 2893억 규모 복지정책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893억 원 규모의 청년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대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의 ‘1만 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

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된다.

또한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

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13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침수예방에 국비 75억 추가 확보

영덕군은 영해면 성내리와 벌영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침수예방사업에 국비 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

영해면 성내리와 벌영리 일대는 호우시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 지난 21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50억 원, 총사업비 72억 원의 규모로 ‘영해 배수 분구(송천2)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덕군 물관리 사업소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75억 원을 추가해 총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209억 원을 투입해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남해군

‘묻지마 범죄’ 안전대책 강연

남해군은 오는 11일 남해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군민안전 대책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관 기관·단체의 범죄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초청된 강연자는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에 범죄분석관인 방원우 경사와 전(前) 남해경찰서장인 윤의출 경무관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서 ‘섬 우력 축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압해도 송공항에서 이틀간 섬 우력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2019년)과 코로나(2020년~2022년)가 겹쳐서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던 섬 우력축제는 이번 에 처음으로 압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신안군은 4월 간재미, 5월 홍어, 강다리, 낙지 축제와 6월 병어, 8월 민어, 9월 왕새우, 우럭, 불불락, 10월 새우젓 등 계절에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우럭은 1kg당 10,000원~1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신안(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안테나숍서 한가위 특판 행사

경북도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경북 농업 6차(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8개소에서 한가위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장영우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50억 달성

개장 22개월 만에 쾌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22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10월 개장한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월평균 2억 2,7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년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내 5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

개장 이후 20여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이용했으며 200여 농가로 시작한 출하 농가수도 530여 농가로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연간 기획 생산을 통해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공예품 등 668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는 농어촌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순항하고 있는데는 소농가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향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경. /해남군

상과 소비자 안전거리 공급을 통한 지역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중 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품목 확대 등 두드러진 생산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위주의 다품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국내외 한인여성 교류의 장 부산서 열려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 개최

부산시는 여성가족부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코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윈(KOWIN)은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번째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전 세계 62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한인 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지역 간 여성 정책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해 왔으며, 부산에서는 2010년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특히 올

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KOWIN, 새롭게 ON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참가자들이 ▲글로벌여성 리더포럼 ▲분야별 네트워킹 등을 통해 4년 만에 다시 만난 서로를 응원하며 한인 여성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코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계적 공감대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특별 세션과 지역 문화 탐방 프로그램,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부스 등이 운영된다.

/부산=김영환 기자 metrobusan3@



지난 4월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조성 사업설명회 사진.

구미시, 밀·콩 이모작 도입 정착 등 5년간 50억 투입해 식량대전환 추진

식량작물 수급 불균형... 전환 필요

구미시는 식량작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식량자급률 향상과 밀·콩 이모작 재배도입을 통한 농가소득원 개발을 목표로 2023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식량대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의 쌀 소비량이 2013년도 67.2kg/1인에서 56.7kg/1인으로 10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고, 밀이 제2의 주곡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급률은 1% 수준으로 식량작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쌀 위주에서 밀·콩 위주로의 생산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밀·콩 이모작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밀산업벨리화 시

범사업, 들녘특구 시범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밀제분시설(1개소 165㎡), 밀·콩재배단지(100ha), 밀체험장(165㎡), 국립종자원 밀종자 채종포(20ha) 등 쌀재배 위주에서 밀·콩 이모작 도입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것에 착안, 제빵에 적합한 품종(백강, 황금알)을 도입해 재배표준화를 유도하고 NIR검사(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정성·정량에 이용, 주로 농산물의 원산지 검사에 사용됨)로 품질등급을 관리함으로써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경북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구미 유치

경기 연천군 제치고 성공

경북도는 지난 1일 열린 2024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 평가에서 경기 연천군을 제치고 구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8회를 거치며 짝수 해에 개최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축제의 한 마당이다. 13만 회원(중앙, 17개 시

도)들이 농촌 희생의 기쁨을 마련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전국단위 최대 규모 행사다.

경북도는 그동안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 총 두 번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구미 유치는 안동대회 이후 20년 만 대회 유치여서 그 뜻이 깊다. 이번 유치지역 선정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한농연연합회가 하나로 뭉쳐 각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 결과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